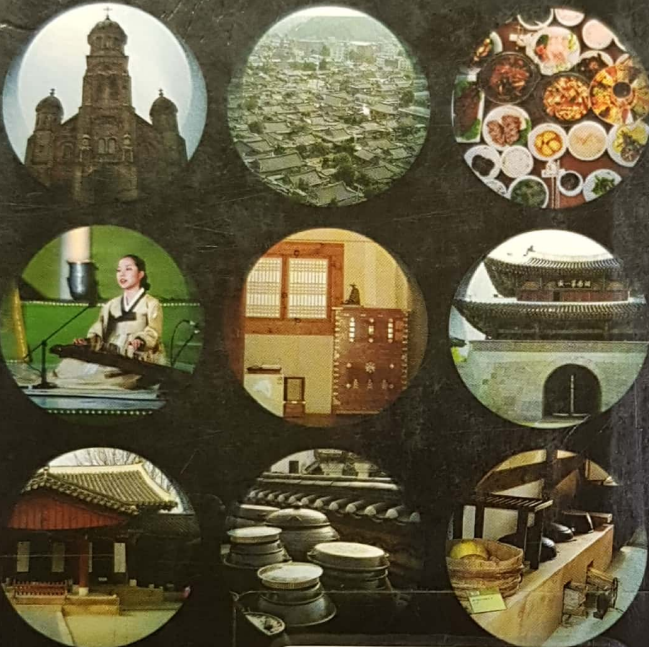


글누리 문화콘텐츠 총서 16

전주한옥마을과 생활문화

김민철



전주시립완산도서관



EM272835



저자 소개

김민철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글누림 문화콘텐츠 총서 16

전주한옥마을과 생활문화

초판 인쇄 2007년 11월 12일

초판 발행 2007년 11월 22일

지은이 김민철

펴낸이 최종숙

편집 이소희 권분옥 양지숙

펴낸곳 도서출판 글누림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77-25 문창빌딩 2층

전화 3409-2055

팩시밀리 3409-2059

등록 2005년 10월 5일 제303-2005-000038호

전자우편 nurim3888@hanmail.net

값 7,500원

ISBN 978-89-91990-59-3 03380

CONTENTS

글누림 문화콘텐츠 총서 발간에 부쳐 _ 5
EDITOR'S NOTE _ 6
PROLOGUE _ 9

1. 전통문화도시 · 12

(1) 전통문화 · 12

(3) 전주의 문화정책 · 23

(2) 전통문화도시 · 13

(4) 전주의 전통문화도시전략 · 24

2. 한옥마을 · 28

(1) 한옥마을의 유래 · 28

(3) 한옥의 구조와 기능 · 42

(2) 한국의 집, 한옥 · 33

3. 전주한옥마을 · 69

(1) 온고을 전주 · 69

(3) 경기전 · 75

(5) 양사재 · 97

(7) 동락원 · 103

(9) 학소암 · 110

(2) 전주한옥마을 · 71

(4) 향교 · 91

(6) 학인당 · 99

(8) 관성묘(관왕묘)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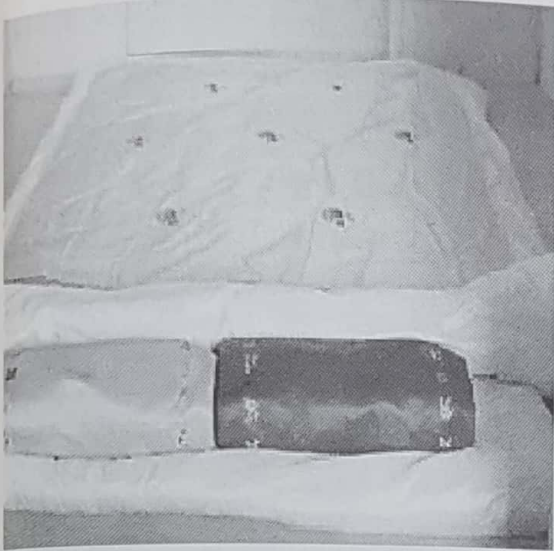
4.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공간 · 111

- | | |
|------------------|-------------------|
| (1) 전통문화센터 · 111 | (2) 한옥생활체험관 · 120 |
| (3) 술박물관 · 126 | (4) 공예품 전시관 · 132 |
| (5) 한방문화센터 · 140 | (6) 전주전통한지원 · 142 |
| (7) 전통찻집 · 1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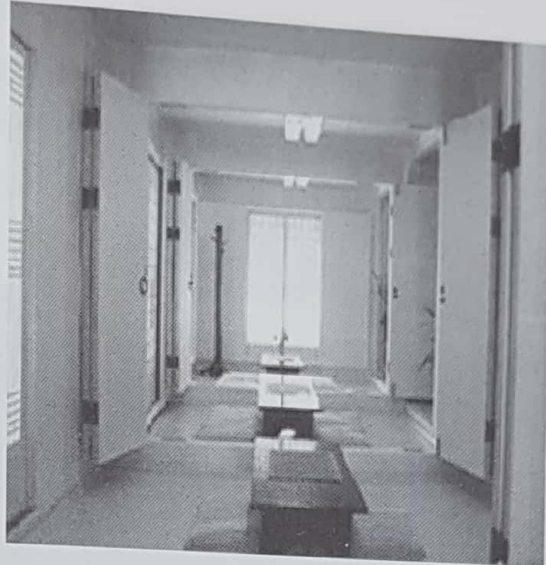
5.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기행 · 147

- | | |
|-----------------|--------------------|
| (1) 풍남문 · 147 | (2) 객사 · 154 |
| (3) 전동성당 · 158 | (4) 남고산성 · 163 |
| (5) 한벽당 · 165 | (6) 조경단 · 169 |
| (7) 지행당 · 170 | (8) 오목대와 이목대 · 171 |
| (9) 문학대 · 176 | (10) 동고산성 · 177 |
| (11) 남고사지 · 179 | (12) 숲정이 · 180 |

참고문헌 · 183



구들방



분합방

(6) 학인당

학인당은 전주 한옥보존지역의 대표적 건물로 한말 건축기술을 전승받은 순한식 건물로서 조선왕조 붕괴 후 궁중 건축양식이 민간주택에 도입된 전형적인 예이다. 학인당(學忍堂)은 교동 105-4번지에 있는 한옥으로 1908년에 건축하였으며 지상1층의 한식 목조건물로 규모는 1동(棟) 5필지(연면적 224.12m^2)에 이른다. 학인당은 전주 한옥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조선 왕권 쇠약기에 궁중건축양식이 민간주택에 도입된 대표적인 예이다. 학인당은 1976년 전라북도 민속자

료 제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건축양식은 한식 기와집으로 암막새와 솟막새, 추녀와 서까래 끝에는 동으로 싸서 풍해를 방지하였고 통선창집이며 주초는 호박주초이고 동편에 기와 난간이 3칸 있다. 우물마루에 모름중방이며 등내서문과 완자 밑창에 갑창과 교갑창으로 되었다.



학인당¹⁰¹

학인당은 효자로 유명한 인재 백낙중이 살던 집이다. 그는 높은 효행으로 인해 고종황제로부터 ‘승훈랑’ 영릉창봉에 제수되었다. 사후에 이를 현창하기 위해 성당 김돈희의 명필로 휘호된 현판을 계양 백낙중지려로 명명하였고 본관은 백낙중의 호 인제(忍齋)에서 ‘인(忍)’자를 따서 집 이름을 ‘학인당(學忍堂)’으로 명명하였으며 효산 이광열의 휘호로 된 현판을 올렸다.

조선 말, 한국 전통 건축기술에 따라 지은 당시의 상류층 주택으로, 조선왕조 붕괴 후 궁중 건축양식을 민간주택에 도입한 전형적인 예이다. 조선 말기에 지은 한식주택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의 한옥보존지역안에 있다. 학인당은 도로에 접하여 행랑채가 담장을 대신하여 서있고 가운데 높게 솟을대문이 솟아 있다. 솟을대문은 홍살로 장식되어 있으며 백낙종이 효자임을 표창하는 ‘白樂中之間’라는 효자정려 현판이 걸려있다. 이 집은 잘 다듬은 장대석 기단 위에 고복형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고막이는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 처리가 흥미로우며 추녀와 사례끝을 동판으로 싸서 풍우를 막게 하고 처마끝은 함석으로 차양을 덧대 놓았다. 또 정면 한쪽에 박공면을 돌출시키고 가운데 창을 내었다. 이것은 다락의 채광과 환기를 위한 것이다.

집을 지을 당시 일류 도편수나 목공 등 연인원 4,280명이 압록강, 오대산 등지의 목재를 사용하여 2년 6개월에 걸쳐 건축하였으며 공사비로 백미 4,000



현판¹⁰²



곰은자 구조¹⁰³



학인당의 팔작지붕¹⁰⁴

102 자료원 <http://hanok.jeonju.go.kr/Hanok>

103 자료원 <http://hanok.jeonju.go.kr/Tradition>

104 자료원 <http://hanok.jeonju.go.kr/Tra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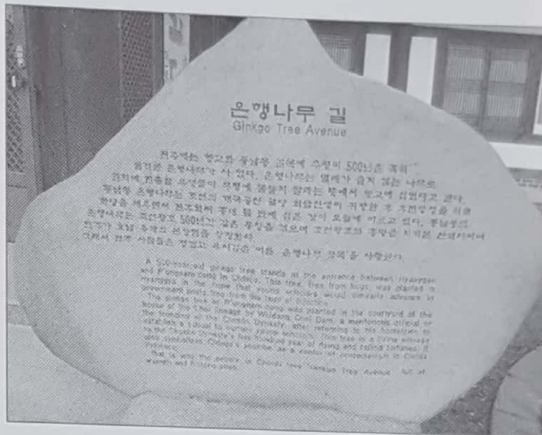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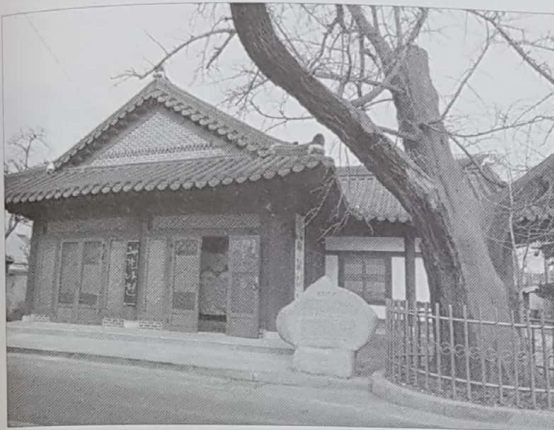
학인당¹⁰⁵

석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학인당 내부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과 많은 꽃들이 피어있어 또 하나의 정원을 만난 느낌이다. 맷돌을 쌓아서 돌탑처럼 만들어져 있어 눈길을 끈다.

전면에서 보면 정면 8칸, 측면 4칸의 일자 집같이 보이나 뒤쪽에 실이 부가된 곶은자 집이다. 평면은 네 칸 크기의 안방과 전후 두 칸 대청이 있고 실 주위에 툇마루가 둘러

있는 형태이다. 방과 대청 사이에는 모두 분합문을 달아 개방할 수 있다. 안방 동측 모서리에는 머리방이 있고 그 뒤에 부엌과 광이 있다. 본래는 머리방 주위에 난간이 있는 툇마루가 부설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건넌방 옆으로 이설하였다. 안방 뒤에는 마루방을 두었는데 이 방을 통해 다락에 출입할 수 있다. 다락은 부엌과 광 상부뿐만 아니라 안방 위까지 넓게 구성하고 단차를 두었다. 대청과 안방 뒤쪽의 마루를 통해서 뒷방, 서재, 세면실 등이 연결된다. 여기를 지나면 화장실과 증축된 목욕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나타나는데 복도 끝에는 세면실과 3칸의 변소가 직각으로 꺾어져 자리하고 있다. 각 실들은 복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기능별로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전통을 바탕으로 기능의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적 계획수법이 돋보이는 집이다.

(7) 동락원



교동 500여 년 된 은행나무 길 전주 최씨 종가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동락원은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전통 문화예술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공간인 전통문화생활관으로 100여 년 전 당시 전주 한옥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곳이다. 전주는 미국의 개신교가 일찍부터 전파된 곳인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전주에 들어와 선교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동락원은 현재 학원선교를 구체화시킨 전킨(W. M. C. Junkin) 선교사의 기념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킨선교사가 활동하던 1895년 당시 전주의 옛 모습을 재현한 전통 한옥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동락원] 전통숙박, 전통음악, 전통공예, 전통무용 등을 직접 체험하며 교육하는 공간

이 건물은 1978년과 1987년에 대보수가 있었으며 1996년에 일부 면적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으나 전킨 선교사가 활동하던 당시 전주 한옥의 옛 모습을 재현한 집으로 사랑채(청유채)와 안채(승독당), 그리고 행랑채를 갖춘 전통 한옥이다.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사랑채 앞에는 정원으로 꾸미고 안마당은 잔디를 심고 조경하여 조경이 잘 된 넓은 마당과 고풍스런 평상이 인상적이다.



동락원 매부의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

사랑채와 안채 및 옆집과는 붉은 벽돌담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사랑채는 높은 장대석 기단위에 방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다. 주간을 일정하게 하고 정면 4칸에 앞뒤에 퇴를 구성한 전후퇴집이다. 좌우측은 방으로 구성하고 가운데 2칸은 대청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좌측방은 부엌으로 나머지는 방으로 바뀌었다. 좌우측 방은 아궁이를 시설하기 위해 마루를 높였으며 방은 앞뒤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대청 앞뒤에는 뿔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마루 끝에는 유리 미서기문을 달아 마루를 내부 공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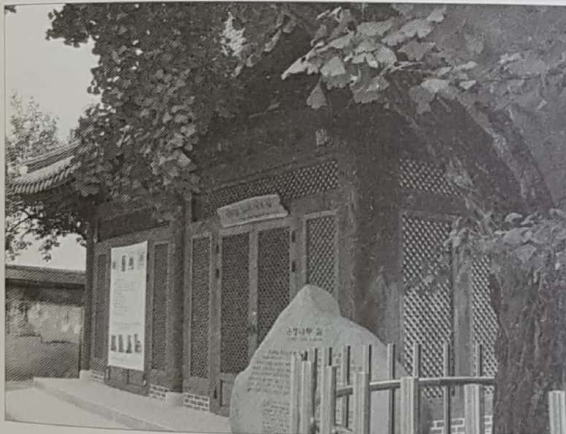


내부구조¹⁰⁶

지붕은 홑처마 팔작 지붕이며 한식기와가 올려져 있다. 창방역할을 하는 장혀가 직접도리를 받는 민도리집이다. 장혀와 문인방 사이에는 딱지 소로를 붙여 수장하였고 마루 밑의 고막이와 합각부 박공면은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 곳곳에서 근대 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 좌측 뒤편의 아치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사랑채와 향을 달리하여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에 홑처마 팔작집이다. 가운데 3칸 앞에는 툇마루가 시설하고 마루 끝에는 유리미서기문을 달았으며 내부와 외부는 모두 개조되어 있다. 현재 이 집은 외지에서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되기도 하며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즉 전통숙박, 전통음악, 전통공예, 전통무용 등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받는 전통문화 교육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동락원 앞마당과 장독대



전관



단청들



[설예원] 전통생활문화교육관으로 생활예절, 다도예절 등 우리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설예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원장의 안내로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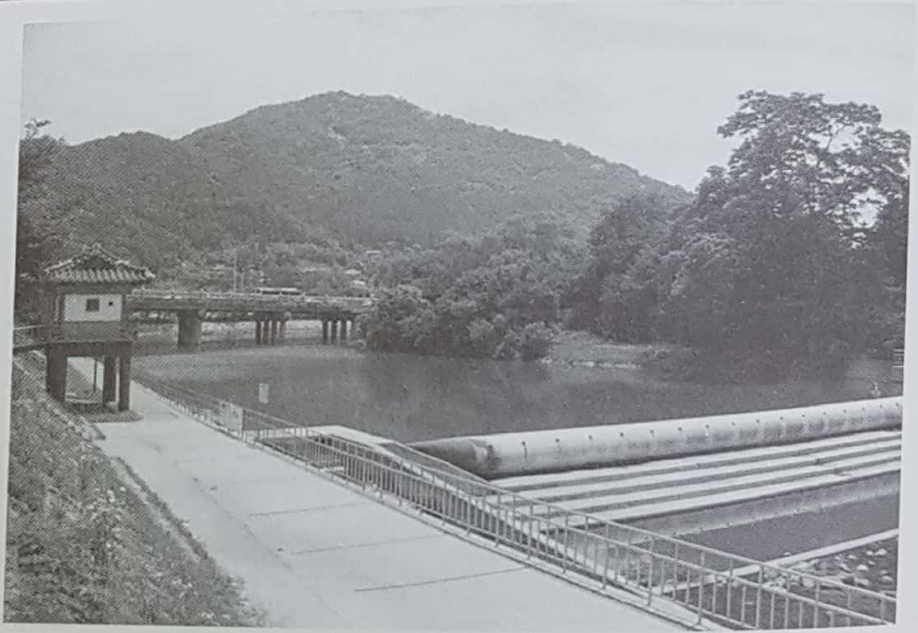
4.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공간

(1) 전통문화센터

한벽루 곁에 둥지를 튼 전주전통문화센터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소리를 사랑하고 타자를 긍정하던 전주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예술과 놀이, 전통의 맛과 멋, 의례와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문화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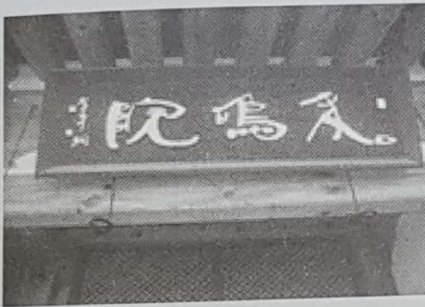
전주천

전통문화센터의 현판



① 경업당(敬業堂)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우고 닦아나가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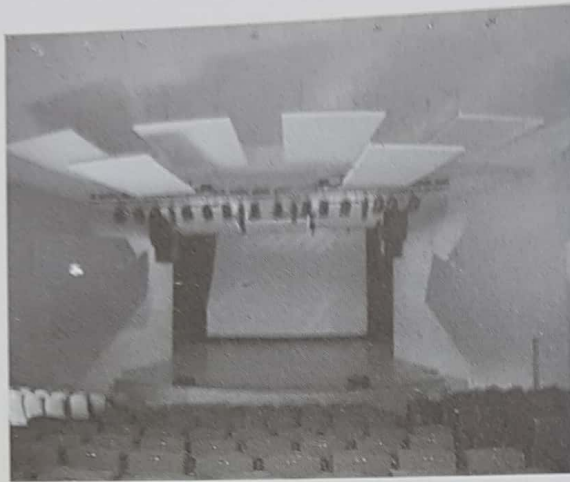


② 화명원(和鳴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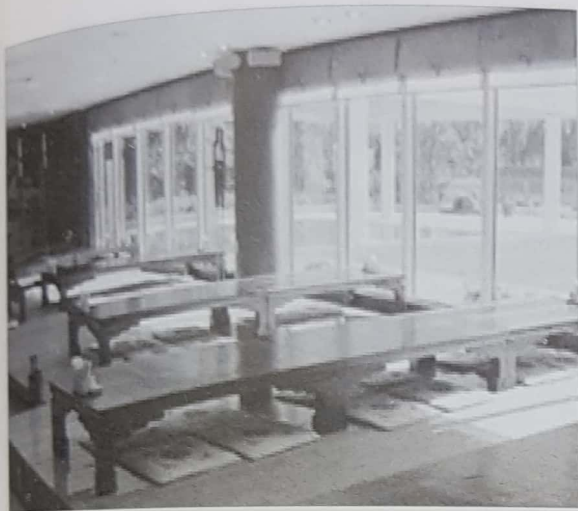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
수컷인 봉새와 암컷인 황새가 화락하
게 지저귀듯 평생을 화락하게 지낼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는 집

한벽극장은 선비들의 풍요와 서민들의 소박함을 보여주고자 한벽이라는 이름으로 사물놀이와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과 되는 풍물판 굿¹⁰⁹을 보여주는 곳이다. 한벽극장은 판소리, 기악, 무용, 극, 타악 등 전통예술관련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¹⁰⁹ 풍물굿은 음악성이 두드러진 “풍물”과 제의성이 두드러진 “굿”의 결합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풍물굿”은 제의로서인 “무당굿”과 구별될 뿐 아니라, 음악으로서의 순수 풍물과도 어느 정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농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두레풍물이나 줄당기기 판에 서 벌이는 놀이 풍물과 구별되는 풍물이자, 무당들이 굿판에서 치는 무악으로서 풍물과도 구별되는 것이 마을 굿으로서의 풍물굿이다. 다시 말하면 풍물잡이들이 마을 굿을 베풀기 위하여 치는 풍물을 흔히 풍물굿이라 한다. 자연히 풍물굿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성원의 주체인 풍물패들이 공동체 단위로 수행되는 제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치는 풍물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풍물 일반이나 굿 일반과 달리 풍물굿은 마을 단위 이상의 공동체 제의와 유기적 결합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공동체적 의미의 풍물굿은 자연히 사회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지역에 따라 각기 색깔이 다른 풍물굿들로 계승, 발전되어져 왔다.



전통음식관 한벽루는 전주의 전통음식인 한정식, 전주비빔밥, 돌솥비빔밥 등을 차려두고 전주를 찾는 나라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전주의 맛 그 특별함을 선사하고자 한다. 또한 그 이층에서는 음식자료전시실과 조리체험실을 갖춰놓고, 우리 음식의 신비스러운 맛의 비밀을 스스로 터득해 가게 하여 전라도 전통음식을 되살리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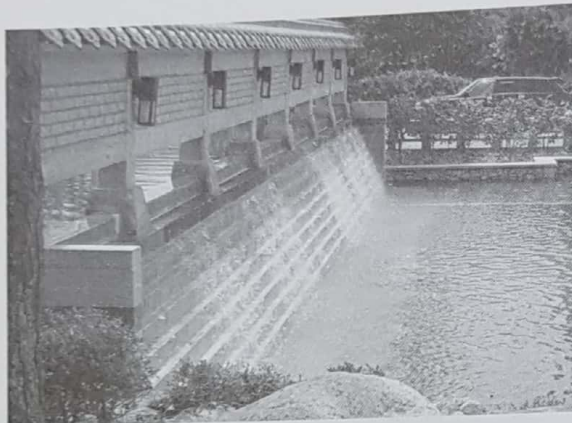
한복루 내부



한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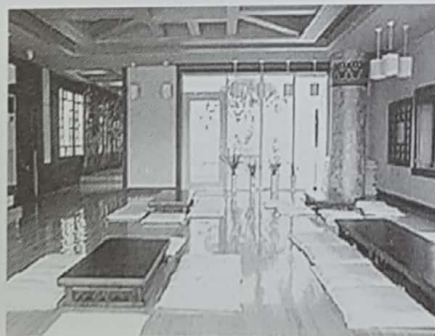


한복루 외부



한벽루의 인공호수

전통차집 다향은 차에 유래, 정의, 종류, 재배조건, 효능, 구덕(九德)과 맛있게 우리는 방법, 차의 보관, 이용방법 등 우리전통차에 관한 이야기와 다례(茶禮)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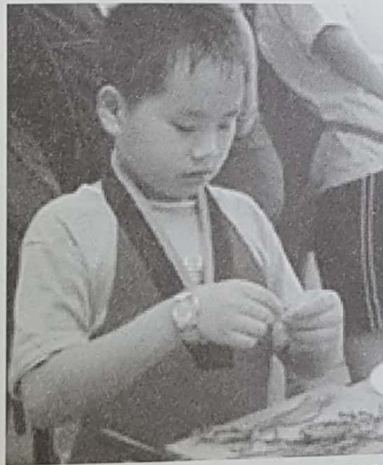
교육체험관 경영당에서는 의례와 예술·놀이·음식·의복 등에 깃든 전통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끼고 체험할 공간이다.¹¹⁰



교육체험관 내부전경



전통떡 만들기 체험



전주 전통비빔밥 만들기 체험



어린이 떡 만들기 체험

110 자료원 <http://www.jt.or.kr>



송편 만들기 체험



외국인 김치 체험



재미교포 전주 전통비빔밥 체험



어린이 전통예절 체험



미군 풍물 체험



예비교사 전통문화 강좌

전통혼례식장 화명원에서는 전통혼례에 식순과 의상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직접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뜻 깊은 날의 잔치마당 전통 혼례식장 화명원



혼례식 준비과정



혼례식 상차림



실제혼례¹¹¹



혼례체험

(2) 한옥생활체험관



창호지문과 온돌방, 대청마루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요즘 우리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옥생활체험관은 조선시대 양반집을 연상케하는 전통한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공연,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즐기고 느끼며 우리 선조의 삶과 지혜를 자연스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전주 한옥보존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은 한옥의 여가를 고스란히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안채(단영원)와 사랑채(세화관)로 나누어진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생활사를 그대로 엿볼 수 있도록 전통가옥을 재현했다.



[안채(단영원)] 반가옥의 안방을 재현하였으며, 3개의 방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숙박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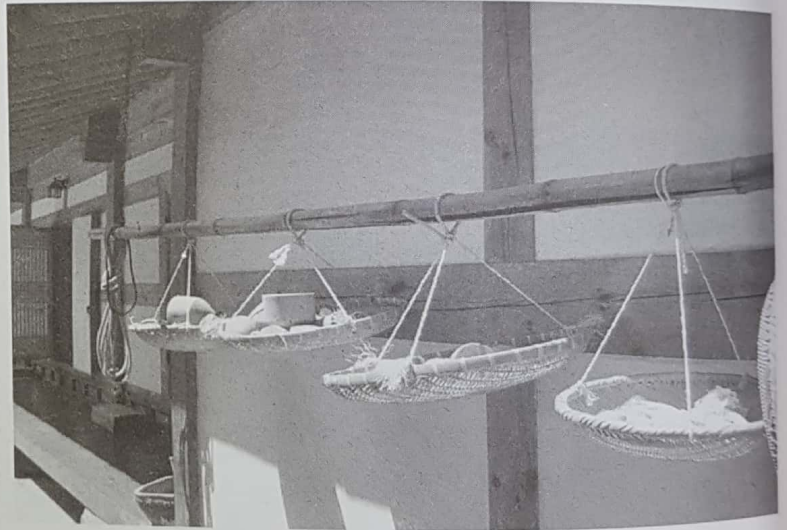




[사랑채(세화관)] 옛날에는 손님을 맞아 대접하고 집안 자녀들의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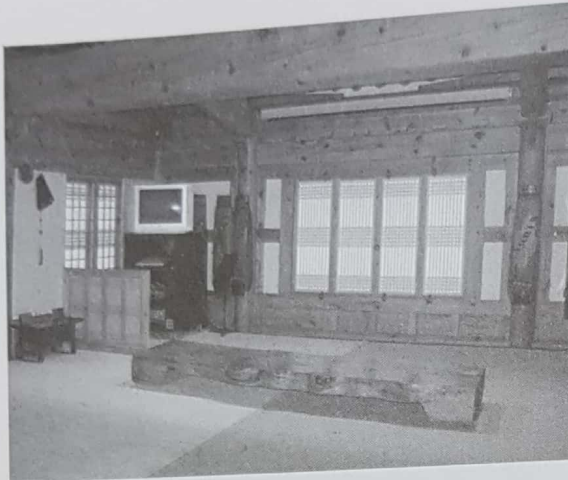
숙박시설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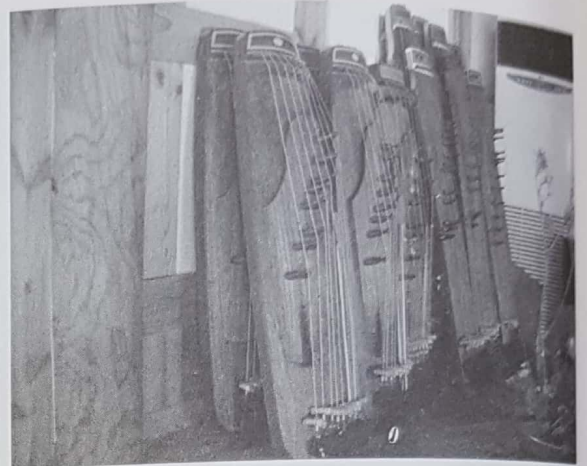
너른 하늘이 탁 트인 마당에서 옷을 놓고 투호를 던지기도 하며 서예, 판소리와 같은 한국 전통생활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테마캠프, 예절, 거문고, 판소리 고법, 차 문화 등 전통문화 강좌가 상설로 진행되고 있다. 대청은 세미나나 워크숍, 토론의 장으로도 적합하며 그 후에 연찬 프로그램도 있다. 전통한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구들에서의 숙박과 오침반상으로 받는 식사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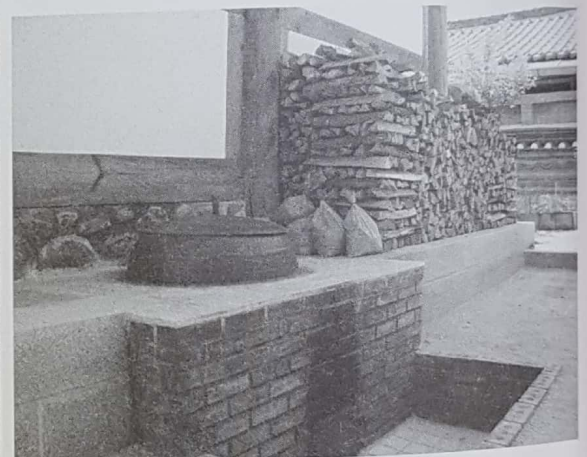
한옥마을 앞마당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청



장독대



가마솥



① 한옥생활체험관



② 세화문(世化門)



③ 세화관(世化館)



④ 다경루(多慶樓)



⑤ 단영원(端影院)

① 중하 김두경

세화관의 고유영사로 "문화의 향기를 나누어 세상의 조화로움을 꿈꾸고 좋은 풍속을 세상에 전한다"는 뜻

②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

전통의 삶과 지혜를 오늘에 살려 세상을 바르고 좋은 풍속으로 변화시키는 문(주련의 첫 글자 인용)

주련: "세전미풍(世傳美風) 화성양속(化成良俗) 아름다운 풍속을 세상에 전하여 이 시대에 맞는 좋은 풍속으로 변화시켜 실생활에서 활용한다."는 뜻

③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

아름다운 풍속을 세상에 전하여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습속으로 변화시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집

④ 심석 김병기, 효봉 여태명

'경사가 넘쳐나는 누대'

⑤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

주로 여성 숙박자에게 제공한다고 하기에 특별히 단정함을 강조하여 '端影院'이라고 함, 즉 그림자마저도 단정하게 가지려고 몸가짐을 조심하는 집.

(3) 술박물관

술박물관 내에 있는 양화당의 전시실에서 전통술을 만드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술은 지역의 풍물, 풍속,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가계(家系)의 비법(秘法)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최근 전통술에 관한 많은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주 전통술박물관에서는 전통술 빚는 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술에 관한 많은 여러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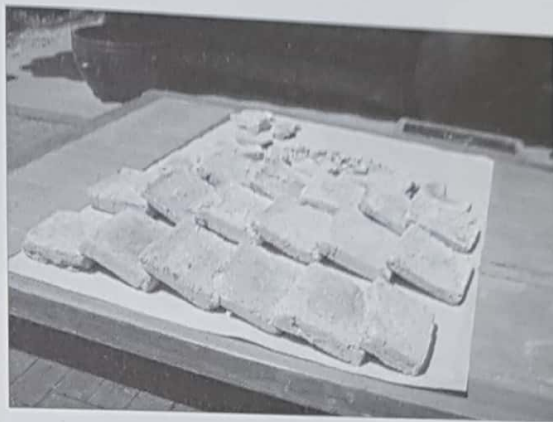
한국 전통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고유의 주조방식에 의한 전통주 생산과정을 볼 수 있다.

전통술 강좌와 우리 술 기행은 우리 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돕고 있으며, 우리 술의 홍보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전통적인 술 빚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양화당의 전시실에는 술 도구와 술 만드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숙성실과 발효실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술 익는 소리를 듣고 술 익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향음주례(嚮陰酒禮)를 치르는

제기들과 전통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계영원에서는 이 지역 작가들이 만든 예쁜 술잔과 기념
품들을 만날 수 있다.



술박물관 내부



메주 만들기



술 만드는 도구



술 만드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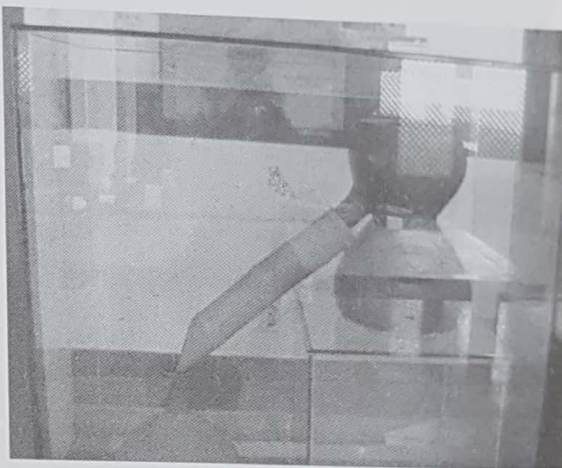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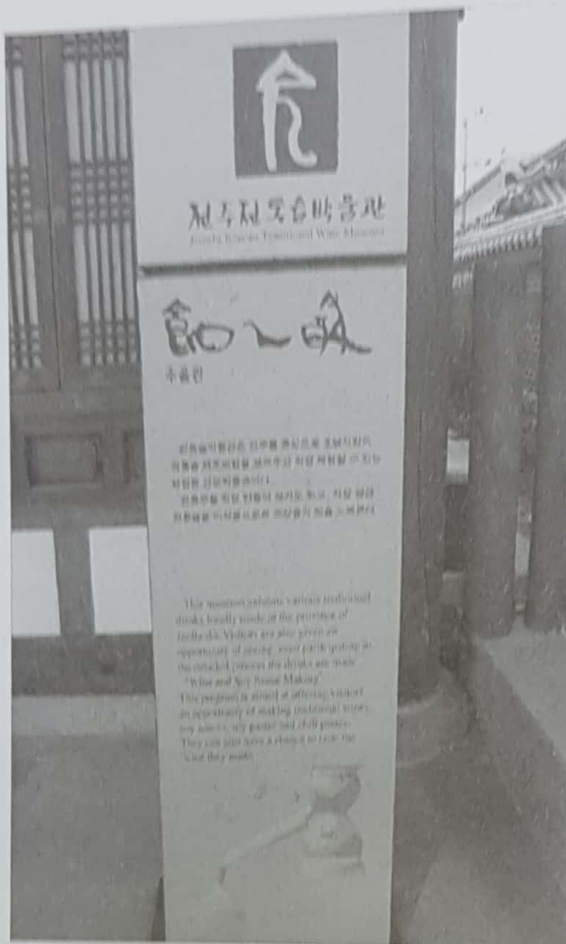
수을관(수乙館, 심석 김병기, 중하 김두경)은 酉禾乙(수을)을 빨리 읽으면 '술'발음이 되므로, '술박물관'이라는 뜻이다.

또한 주말을 이용하여 전통술(우리술) 빚기(각종 전통주 빚기, 연중 25~30여 종), 시음(과하주, 더덕주, 송엽주, 죽엽주, 백화주, 백일주, 삼해주, 국화주), 품평(전국 약 500여 전통주 제조회사 참가하여 전통술 품평회개최), 기행(전국의 전통술 명인과 명주를 만나보는 체험과 더불어 부근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수을관'으로도 불리는데 '수을관'이란 물속에 불이 있다는 수불이 그 어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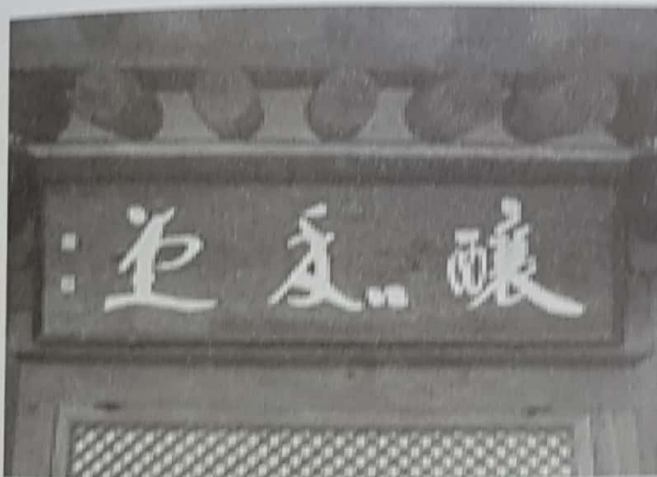
다. 술을 담가 놓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이 오르기 때문에 생긴 말인 듯싶는데 수율은
'술'의 고어로 '수'자에는 쌀을 발효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수율관'은 전주전통술박
물관의 고유명사로 쓰인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주세법 공포아래 소멸되어 가던 전래주의 맥
을 찾아 집집마다 술을 빚던 가양주의 전통을 오롯이 되살리는 공간으로써 우리 전통술들을
전시, 판매 하며, 우리 고유의 주조방식을 배우며, 직접 빚어보기도 하는 체험형 박물관이며
계영원과 양화당으로 구분된다.







개명원(誠益院, 심석 김병기)
잔이 넘치는 걸 경계하라,
가득채물을 경계하라, 즉, 술을 도에 넘
치게 마시지 않도록 늘 삼가고 조심하
는 집으로 모자람의 미덕을 가르치며,
조식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곳으
로 '실로'로 유명해진 개명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밖에 개명원에
서는 전국에 있는 전통술(이갈주, 송화
백일주, 송축오곡주, 복분자, 홍주, 머
루주 등)를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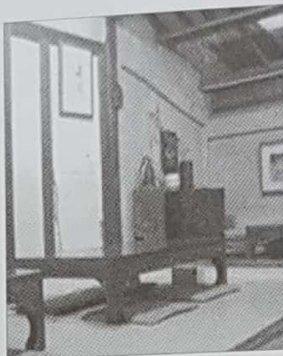
양화당(釀和堂, 심석 김병기, 종하 김두
경)은 술 박물관 내에서도 술을 빚는 방
이다. '화목'을 빚는 집이라는 뜻이다.
직접 술을 빚는 과정과 유물, 양음주에
관련자료 및 술 빚는 도구들을 볼 수 있
고 연구자들이 직접 누룩과 고두밥을
이용해 전통술을 만드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해 보는 전통술
빚기의 교육의 장소이다.

(7) 전통차집

전주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전통차를 음미할 수 있다.¹¹²



다원



다문



다숨



다향



다호



달새는 달만 생각한다



미당



연꽃에 피운 뜰